

근대적 복식 유행에 관한 중층적 평가와 이분법적 인식

- 1920년대~1930년대 유행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조희진*

■ ———— <目 次> ———— ■

- | | |
|----------------------|--------------------------|
| 1. 머리말 | 3. 유행 공간과 주체에 관한 이분법적 인식 |
| 2. 유행에 관한 중층적 평가와 인식 | 4. 맺음말 |

1. 머리말

유행(流行)은 어떠한 상품이나 취향·인식·사고방식 등에 관한 대중의 일시적·집합적 선호도를 일컫는 개념이다. 사회 어디에서나 등장할 수 있고, 어떤 형식으로도 가시화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의복이나 장식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에 관한 대중의 집합적 선호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 시대 혹은 사회의 유행, 특히 ‘복식(服飾)’ 유행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일면을 개인의 외형, 스타일과 같은 일상의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복식은 개인과 사회의 외형적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매개이며, 그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유행이라는 집합적 성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복식 유행은 사회적 변화의 단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이기도 하다.¹⁾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짐멜(Simmel)은 인간이 차별과 모방, 혹은 동일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며 이것이 유행을 추종하는 심리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기 위한 욕구가 모방으로 구체화되어 유행을 추종하는 행위의 보편적 특성으로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G.Simmel, 1957 “Fash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p.545). 블루머(Blumer)는 유행을 경쟁하는 스타일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연속으로 보았고 유행의 중요한 특징을 역사적 연속성, 근대성, 집합적 취향과 소비자의 심리적 동기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유행은 계급 차별에 대한 대항의 욕구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유행 안에 있기를 원하는, 즉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취향을 표현하려는 것이다(H.Blumer, 1969 “Fashion: From Class Differentiation to Collective Selection”. *Sociological Quarterly*, 10(3), pp.281-282). 보드리야르

그 동안 근대적 현상으로서, 1920~30년대 조선에서 나타난 유행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결코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유행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유행의 주체로 부각된 여성 집단이나 개인에 관한 논의, 그리고 유행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근대적 소비와 소비 공간 형성에 관한 언술의 일부로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유행이 나타나는 공간은 소비 공간과 동일시되었고 진고개의 백화점, 종로의 야시(夜市) 등이 대비되거나²⁾ 당대 언론에 의해 유행의 주체로 평가 받았던 신여성과 여학생, 기생 등의 외형적 특성, 그들이 선택한 유행 품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³⁾

유행이 발현 혹은 향유되는 공간에 관한 논법에 있어서도 경성을 중심으로 진고개와 종로를 나누어 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유행의 이행 경로에 관한 '당대적 인식과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모던 걸이나 모던 보이, 여학생과 같은 유행의 주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선호한 유행 품목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빈번했던 데 비해 그들이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관한 인식이 때로 다른 공간에 있는 같은 대상에 관한 중층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별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듯하다. 즉 소비 공간과 유행의 주체에 관한 언급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층위가 엮이면서 나타난 유행 그 자체에 대한 중층적 평가와 주체의 문제, 공간에 관한 상대적이고 이분법적 인식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논의된 바 없다.

이 글에서는 당대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유행에 관한 당대 인식의 중층성을 살펴보고 유행의 이행 경로에 관한 인식 속에 잠재된 식민지적 현실의 반영, 그리고 때로는 유행의 주체로, 때로는 유행의 추종자로 평가된 개인이나 집단을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의 층위 속에서 판별하려 했던 움직임에 확인하려 한다.⁴⁾ 더욱 구체적으로는 유행이 발현·전파되는 경로와 유행에

(Baudrillard) 역시 이와 유사하게 유행을 '변화에 대한 욕구의 표현'으로 보았다. 유행 상품 소비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자 교환 체계이며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는 사회적 차이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보드리야르(이상률 옮김),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文藝出版社). 이들의 논의는 유행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담고 있으며 유행이 사회 구조와 생산 구조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안에 내재된 원리와 기제, 영향력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근대적 현상'으로서 유행이 갖는 몇 가지 속성을 가늠케 한다.

- 2)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2005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76-87면; 최병택·예지숙, 2009 『경성리포트』, 시공사, 88-142면.
- 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앞의 책, 55-75면; 김정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17-231면; 권보드래, 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임옥희, 2004 『복장의 정치학과 식민지 여성의 소비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태혜숙 편), 여이연.
- 4) 대개의 경우 유행을 특정한 의복이나 외형에 기반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구체적인 유행 아이템이 아니라 유행 자체에 관한 당대 사회의 평가이다. 이 글의 목적이 식민지 시기에 유행한 아이템의 특징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1920년에서 1930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이 시기에 발간된 신문과 잡지에서 복식 유행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유행과 관련된 논의가 언론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1910년대이며 1920년대와 193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되었

관한 인식, 그리고 그 공간에 존재하는 주체에 관한 평가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 소비문화 속에 침잠했던 일부 피식민 주체들의 경험에 존재하는 복잡성이나 모순, 개별성과 특수성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철저히 객체로 규정된 채, 주체와 공간의 이행 관계를 일반적·단선적인 것으로 설명하려 했던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당대 시선의 전형성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게 될 것이다.

현상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복식을 매개로 드러나는 유행은 대단히 명료하고 간단하다. 그러나 그것을 추종하는 주체는 물론 관찰하고 평가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대상이 또한 유행이다. 유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인식의 범위, 대상화 방식에 따라 같은 시기, 같은 매체에서 서로 다른 평가 혹은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어떤 대상에 관한 '평가'는 당대인들의 인식에서 기초하는 것이며 새롭게 대두된 현상에 관한 사회적 대응 혹은 수용의 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1920~30년대에 발행된 신문과 잡지의 기사이다.⁵⁾ 어느 시대에나 신문과 잡지는 유행에 관한 당대인들의 시각과 판단, 평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충실하게 기능한다. 이 글에서 근대 이행기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유행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폭넓게 담아내는 장으로 언론 매체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 매체 기사에 관한 분석은 당대에 발행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드러난 평가와 수용·인식의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시대적 상황에 근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글에서 사용하는 유행의 범위는 '복식'에 한정되며 한복과 양복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서양식 문물의 도입 이후 한복과 양복이 공존했고 각각이 독립적인 유행을 형성하거나 혼용되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 유행의 범위는 마땅히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굳이 '근대'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자본과 상품, 소비 공간 등의 근대적 환경 없이 오로지 개인의 모방과 이행을 통해 확산되었던 전근대사회의 유행과 차별되는 지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유행은 '근대라는 새로운 시공간적 질서 속에서 복식을 매개로 나타난 대중들의 집합적 행위'로 정의될 것이다.

다가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함에 따라 대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5) 신문 자료로는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를 선정하였으며, 잡지 자료로는 『개벽(開闢)』, 『근우(勤友)』, 『동광(東光)』, 『별건곤(別乾坤)』, 『삼천리(三千里)』, 『신민(新民)』, 『신여성(新女性)』, 『여성(女性)』을 논의의 범위 안에 두었다. 각 자료에서 먼저 유행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추출한 뒤 그 가운데서 사회적 인식과 평가, 유행 공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 글에 인용한 기사는 원문을 충실히 따랐으며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명확히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2. 유행에 관한 중층적 평가와 인식

1) 시대정신⁶⁾과 근대성 반영체로서 유행

식민지 조선에서 유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시체(時體)’였다. 이때 시체는 ‘한 시대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시대를 이끌어 가는’ 혹은 ‘근대적 자극과 변화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시기 유행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주로 일시성과 급변성, 빠른 교체주기 등과 같은 특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유행은 다각적(多角的)이며 유동적(流動的)이다. 유행은 급진적(急進的)이며 순환적(循環的)이다. 그리고 달팽이의 촉각(觸角) 가치 예민하다. 올타! 그것보다도 유행은 시대색(時代色)을 날새게 표증(表證)하는 한 마리 영리(伶俐)한 카메레온이다⁷⁾”라고 정의되는가 하면, “유행이란 바다의 드나드는 밀물과 가타 갓다간 다시 오고 왔다가 도루 가는 것⁸⁾”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였으며, “유행은 성미급한 조류(潮流)입니다. 이것에 뒤지지만코 따라야 할 필요도 또 의무도 없겠지요!”⁹⁾와 같이 냉소적인 기사가 등장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더니즘에 관해 언급하면서 유행의 속도감과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1931년 『신민』에 실린 오석천(吳石泉)의 글에 따르면 유행은 “말초를 자극하는 감촉이자 흥분제¹⁰⁾”였다. 그리고 그 자극이 매혹적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흡수되는 특성을 보이는 현상이었다. 발현 기제와 경로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점 또한 이때 관찰된 유행의 특성이었다. 유행의 일시성과 급변성을 짚어 내는 가운데서 이 글의 저자인 오석천이 주목한 것은 “시대생활과 시대정신이 빚어내는 분위기이고 향기”라는 점이었다. 글의 본 방향은 모더니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행의 속성을 함께 설명하려 했을 뿐, 처음부터 유행 자체에 대한 평가를 주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더니즘과 유행, 시대정신을 함께 언급한 배경에는 유행이 근대성을 반영한 현상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행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병폐로 몰아가는 한편에서 시대정신의 발로이자 근대적 특성을 반영한 현상으로 규정하려는 상반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931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의복의 재료와 형상과 색채의 변천을 따라

6) 이 글에서 ‘시대정신’은 당대인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실천·체득하고자 하는 어떠한 인식의 흐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의 기사에서 사용되는 ‘시대정신’의 의미 역시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기사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시대정신이라는 표현이 근대성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동일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朴露兒, 1930 『十年後 流行』 『別乾坤』 제25호, 開闢社.

8) 『동아일보』 1932년 1월 26일.

9)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6일.

10) 吳石泉, 1931 『모더니즘戲論』 『新民』 제67호, 新民社.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의 육체의 율동의 변천을 간과할 수 없고 한층 더 들어가서 이 시체의 변천의 이면에 있고 또 그 원동력인 정신의 변천에 유의(留意)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주장이 실린 것 역시 유행을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인식, 근대성의 반영으로 규정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더불어 이 기사의 작성자는 유행에 관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대정신의 포착(捕捉)”¹¹⁾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말초적이고 외형적인 변화로 치부되는 유행의 이면에서 그것을 추동하는 당대의 내적 변화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요청과 같은 맥락이었다.

유행을 시대정신과 근대성의 반영체로 인식하려는 태도는 그것을 추종하는 대중의 자세와 유행의 구체적인 양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기도 했다. 그 한 예가 여성의 단발(斷髮)이었다. 김기림은 여성의 단발에 관한 글¹²⁾에서 단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진 의미를 “단순과 직선을 사랑하는 근대감각(近代感覺)의 세련된 표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땡아 늘 어뜨린 전통적인 머리에 대해서는 “암전한데는 틀림없지만 거기는 이 시대에 뒤진 봉건(封建)시대의 꿈이 흐릅니다”라는 대비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단발이라는 새로운 유행과 그것을 추종하는 행위를 근대적인 것으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봉건적 속성으로 평가했으며, 그 중간적 입장에서 외형 변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전환을 채 이루지 못한 표리부동한 인물들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다.¹³⁾ 근대적 현상인 유행을 제대로 추종하려면 외형 변화에 의식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의식과 실제의 괴리가 크다는 것, 그저 유행을 따르는 것만으로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사조를 체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행을 추종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유행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유행은 개인의 외형을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일조했고 대중들로 하여금 정신의 변화와 모더니티에 관한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¹⁴⁾고 평가될 만큼 큰

11) 『동아일보』 1931년 4월 27일.

12) 金起林, 1932 『斷髮과 朝鮮女性 미쓰.코리아어 단발하시오』 『東光』 제37호, 東光社.

13) 1920년대 여성의 단발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의 유행과도 연관이 있었다.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혁명적인 사회를 건설하려 한 ‘여류사회주의자들의 투사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어 전통에 대한 반항으로써’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단발한 여인들은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였다. 전통에 반발하는 것이든 신식을 추종하는 것이든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진보를 자처하거나 새로운 문물에 대해 관대한 인사들은 여성의 단발을 ‘모더니즘’의 실현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단발을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경제적이라는 이유와 함께 여성해방의 표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단발을 첨단 유행이 아니라 근대적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여성의 단발이 단순한 유행 이상으로 세간의 관심과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리고 ‘남녀유별’과 같은 기존의 관념이 합리성과 근대적인 감각을 추종하는 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었다. 단발에 관한 찬반 의견에서 한 여성은 ‘단발은 우선 머리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과거의 기준들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자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단발은 모더니티의 진정한 표상이었다(김진순, 1999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78-181면).

14) 리포베츠키(이득재 옮김), 1999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05-106면.

자극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유행을 통해 외형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변화된 외형이 시대정신과 근대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코드로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이 유행을 선택한다는 것은 근대성을 체현하고 근대적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과 동일시될 만했다. 이 시기에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오히려 “첨단 시대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¹⁵⁾처럼 비판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시기, 덮어놓고 유행을 따르거나 극도로 기피하는 양극단의 움직임 모두를 비판하면서 좋은 유행과 나쁜 유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가 등장한 것은 유행의 존재와 시대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였다. 비록 당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사의 존재는 ‘시대정신의 반영’인 유행을 따르되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기준을 확립하고 근대적 감수성을 수용하여 시대적 변화에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행! 요사히 일반이 조와하는 것은 유행! 즉 남하는대로 따라가는 것을 대단히 조와하는 것 같다. 특별히 복장에 한하여 이 유행이 더욱 심(甚)한 것 같다. 유행이라면 무엇이던지 더러워도 조코 보기 흉하여도 그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 조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유행에는 조흔 것도 있고 조치 아니한 것도 있으며 보기 조흔 것과 보기 흉한 것도 있는 것을 아려야만 한다. ...중략... 이와 반대로 유행을 극도로 기피(忌避)하는 층(層)도 간혹 볼 수 있다. 자기에게 색이나 문채가 맞던 아니 맞던 일반이 만이 입는 것이라면 취하지 안코 일반이 잘쓰지 않는 것이라면 더욱 더퍼놓고 취하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다.¹⁶⁾

이제 막 근대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근대 이전 사회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형적 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유행은 대단히 낯설고 모호한 현상으로 다가왔다. 유행은 식민지 조선의 대중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현상이었고 그 저변에 녹아 있는 모더니즘에 대한 동경과 반발의 대비는 유행에 관한 반응과도 연동되었다. 유행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으로 지목된 모더니즘에 관한 경계와 거부감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변화 자체의 긍정정보보다는 ‘근대적 현상’으로서의 이질감을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 모더니즘이 관능과 향락으로부터 태동한 것이라는 비판과 조선에서 나타난 모더니즘이 일본으로부터 ‘이식받은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는 데 대한 반감까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결국 유행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그 안에 내재된 모더니즘과 근대성의 부정적 특성, 식민지적 상황에서 맞닥뜨린 한계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유행은 근대적인 변화인 동시에 퇴폐적인 것이며 인류의 정

15) 『동아일보』 1936년 3월 20일.

16) 『조선일보』 1939년 5월 21일.

신을 퇴락시키는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시체(時體)는 있다. 사상에도 시체가 있고 의복장신(衣服裝身) 등 사람의 외모에도 시체가 있다. 사상의 시체를 시대사조라고 하고 의복장신 등의 시체를 유행이라고 한다. 전자는 후자의 체현(體現)이다. 그렇지만은 시체라는 것이 구주대전(歐洲大戰) 후(後)의 금일과 같이 인생생활(人生生活)에 중요한 지위를 점한 것은 실로 인류 사상(史上)에 보지 못하던 바다. 원래 시체라는 관념 속에는 변천이라는 관념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마는 현대의 이른바 모더니즘과 같이 거의 이년(二年)을 □□하는 안정성도 없이 일극단(一極端)에서 타(他) 일극단으로 변천되는 것은 구주대전 전(前)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악(瞻若)할만한 경이(驚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조선의 유산유식계급(有產有識階級)의 청년남녀가 결연(缺然)한 스피드로 모더니즘의 시체 중(中)에 돌진(突進)하는 것은 범범(泛泛)하게 간과(看過)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¹⁷⁾

당대인들이 보기에 유행은 확실히 서구에서 출현한 모더니즘과 관련이 깊은 현상이었다. 유행이 근대적 현상이었던 만큼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를 배제하고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유행에 관한 평가와 모더니즘에 대한 평가가 중첩되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유행은 변화의 가능성이 두드러진 일시적이고 다양하며 속도감이 있는 현상이었고 가벼움과 변덕스러움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즉흥적이고 유치한 성향이 묻어내는 것이기도 했다. 어느 시대에나 복식을 매개로 한 유행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제반 사항과 부차적인 영향력을 배제했을 때, 유행은 당대인들의 생각과 기호(嗜好)를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당대의 논자들 역시 유행에 잠재된 부정과 긍정의 양자(兩者)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행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유행에 내재된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인식은 항상 공존했다. 사회적 현상에 관한 모든 논의가 그러하듯 복식 유행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 역시 긍정과 부정, 수용과 거부의 양극단을 오가는 특성을 보였고 그 안에서 근대성을 담보한 현상이자 시대정신의 반영, “세태의 분위기”¹⁸⁾를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정의와 평가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앞선 감각과 서구지향성 지표로서 유행

유행을 변화하는 시대, 그리고 시대정신의 반영물로 간주하는 흐름과 더불어 나타난 것은 ‘서

17) 『동아일보』 1931년 4월 27일.

18) 『동아일보』 1937년 6월 3일.

구'라는 낯선 세계를 유행의 '근원이자 모델'로 끌어들이는 설명 방식이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유행이 혁신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움과 낯설음을 동반한 변화의 한 양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행이 대부분 서구에서 만들어져서 전해진 것이라는 근원적 속성에 대한 인식은 '유행=새로운 것=서구에서 온 것=근대적인 것'이라는 공식을 일반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로서의 유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기 대중에게 강한 자극이 되었으며 동시에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1926년 동아일보에는 "서양에서는 의복의 유행은 일 년에 두 번 변하고 양산의 유행은 해마다 반다시 변한다고 한다. 혹 었던 해는 일 년에 두 번도 유행이 바뀐다고(바뀐다고 연구지주) 한다"¹⁹⁾는 기사가 실렸다. 끊임없이 유행이 창출되고 바뀌는 서구의 사례를 예로 들며 조선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일본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진 유행 또한 그러한 인식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그것이 바람직한 유행이든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이든 유행 그 자체가 이행되는 경로에 대한 인식은 별다르지 않았다. "동경의 모던걸 중에 동경 은좌(銀座)의 모던걸은 양장을 하고는 양말을 신지안코 버스 다리의 유펜미를 발휘하고 단념으로 문대를 일으켰다는 바 남녀를 물론하고 발벗고 나서기를 조금도 괴상히 생각지 않는 일본에서도 양복을 입고 -더구나 정강이치는 양복치마 및혜- 붉은 다리를 들어내는 것은 풍교상 좋지 못하다고 문대가 된 것이며 유행의 시작은 러시아 연극단의 여배우들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준 데 있었다한다"는 1927년 8월 17일 동아일보 기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유행의 근원을 조선의 바깥, 즉 일본과 서양 같은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외국 문물에 대한 모방과 추종을 유행의 한 속성이자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에 호응하여 과리와 영국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음으로써 좁게는 첨단 유행을 수용하여 앞선 감각을 뽐내고 넓게는 세계적인 조류(潮流)인 '근대'를 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 또한 광고와 언론 매체를 통해 적잖이 등장했다. 적어도 이러한 기사와 광고 속에서 복식 유행의 근원을 알고 따르는 것은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변화를 받아들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여겨졌고 서구의 유행을 좇아 외형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흐름을 습득하고 체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듯 보였다.

그러나 동시대의 평가가 서구에서 들어온 유행을 추종하는 움직임에 마냥 관대하리만 했던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 수입한 유행을 무리 없이 소화하는 것이 근대적으로 앞선 감각의 소유자이며 서구의 여러 문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했지만, 역으로 쓸데없는 일에 몰입하다 주체성마저 상실한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 또한 높았다. 근대적 유행의 표본을 서구의 상품이나 서구적 외형에 두는 가치 기준 때문에 "시체의 90%가 양풍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조선보다 훨씬 더 앞서 유행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일본에서 "눈알까지 푸르게" 하지 못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전언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19)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

비판의 농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네전은 몰이지만 근래에 일러 시체라 하면 그 요소의 90퍼센트는 양풍일 것이다. 요새는 좀 덜하지마는 한때는 서양사 것이라 하면 답허노코 조타하야 의복, 음식, 심지어 빼트까지라도 노치 못해하든 분들이 있섯다. 일본에도 이런 때가 잇서서 눈알까지 푸르게 못하는 것을 한탄한 이가 있섯다 한다.²⁰⁾

유행처럼 쑥스럽고 싱겁고 무가치한 것은 업는 줄안다. 호화로운 외국양반들이 몇해 전에 유행 식하든 것을 실증나서 보내는 古物을 가지고 유행입네하고 떨치입고 쓰고 다니는 것은 애처러운 희극배우이다. 유행은 외국쓰레기통 문명을 모방하는 가장 低劣한 것이다.²¹⁾

유행을 서구적이고 혁신적인 것, 앞선 감각의 반영으로 간주하며 동경하는 움직임의 반대편에 서면 이때의 유행은 곧 “외국 쓰레기통 문명을 모방하는 저열한 것”이자 “싱겁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서구적 유행과 외형을 따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 것과 물 건넌 것”을 따를 형편이 안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경제력으로 해마다 다른 유행을 선망하는 것이 가당찮은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유행을 좇아 헤매는 대신 머리(생각)를 새롭게 하자는 주장²²⁾이 등장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근대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대신 외형적 변화에만 급급한 세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앞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사고 입고 쓰는 유행은 사회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지름길로 간주되었고 유행과 사치가 늘어 가는 시류(時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또한 높을 수밖에 없었다. 서둘러 체득해야 할 근대적 외형의 표본이자 ‘시체’로 서구식 차림새를 권하는 움직임과 그것을 한낱 ‘양풍’으로 취급하는 언조의 공존은 외형적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유행에 관한 복합적이고 중층적 인식과 평가의 한 예였고 그런 가운데서 직접적인 유행의 근원지이자 표본으로 지목된 것은 조선도, 일본도 아닌 오직 그 너머의 ‘서구’였다.

3) 개별 욕구 표현 및 집합적 모방 대상으로서 유행

유행에 대한 대중의 강한 몰입 강도, 신속한 파급력과 집합적 성향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개인적 차원의 개성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1920~30년대 유행에 관한 시각 중 하나였다. 그것은 유행의 파급 범위와 영향력, 집합적 선택과 개인차 사이에 존재했던 역학 관계를 설명하

20) 崔鶴松, 1927 「테카단의 象徴, 모-던꼴·모-던뽀-이 大論評」 『別乾坤』 제10호, 開關社.

21) 方春海, 1931 「1931년의 流行豫想」 『別乾坤』 제36호, 開關社.

22)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5일.

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유행이라는 것은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사회에 횡행합니다. 더구나 여자계에는 유행은 신속하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외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목둘이 하나를 보았는가 하고 생각할 동안에 수일을 지나보면 어느덧 벌써 유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행이 절대로 어대까지 든지 한업시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개성에 딸아서 모든 유행을 환영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임으로 유행은 어떤 범위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방성은 기를는지 모르나 다른 밀면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차별욕(差別慾) 전유욕(傳有慾)이 잇는고로 기튼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잇다할지라도 그 물건을 선택하는 데에 잇서서는 결코 갖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개인성 즉 취미여하의 차이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방면도 또한 갖지 안홀 것입니다.²³⁾

1930년 중외일보 기사에서 기지는 사람이 가진 기본 속성으로 모방성과 차별욕·전유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유행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개성과 취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행의 과급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를 비롯하여, 서구에서 들어온 유행이 당대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보다 '조선적인 것으로 바꾸어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공존했다. 이것은 서구적 유행 수용에 관한 중립성을 견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체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특히 유행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관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이때 이미 집합적 선택으로서의 유행은 물론 그 기저에 존재하는 개별성과 개성 등의 상반된 논리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유행이란 돌고 도는 것- 삼년전에 돌아간 것이 올해에 다시 돌아오고 불란서 파리에서 유행하는 가고 보면 얼마 안되어 옆집으로 오고 옆집에서 돌아간기는가고 보면 한박퀴 휘 돌아서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에서 보든 것을 종로네거리에서 보게 되는데 남의 것을 그대로만 본떠 오며는 어쩐지 모르게 어색한곳 있으며 때로는 그 정도를 지나쳐서 보기 흉한 데까지 이르는 수가 없잖아있습니다. 유행을 따르되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게 맞게 해야 될 것입니다. 머리를 지진다 드라 하니까 맞지도 않게 함부루 지지는등 매니큐어를 한다고 누런 손에다 피 발른 것처럼 해가지고 다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고 불쾌하게 한다는 것은 확실히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²⁴⁾

따스한 봄일기에 취해서 산으로 들로 꽃구경 사람구경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요동안 조선에서

23) 『중외일보』 1930년 8월 3일.

24)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12일.

는 영문도 몰을 「사구라(벗꽃)」 구경이 과히 유행되어가지고 아귀다툼을 하여가면서 창경원으로 머리를 싸고 들어갑니다. ...중략... 더구나 철땀아 가지각색의복을 준비하여서 정도에 넘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그 의복이라는 것이 무척 돈을 더리고 모양을 내라고 하였지만 기실은 그리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수한 것은 의복을 입으실줄 모르는 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중략... 무엇이든시간에 다 각기 자기에게 맞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며 또 유행에 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었다고 하여 반듯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근본적으로 틀리고 맙니다.²⁵⁾

1936년 조선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역시 유행을 따르되 “내 것을 만들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유행을 추종하는 것은 ‘실패’라고 단정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유행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울린다고 해서 자신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틀리고” 마는 것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로서 패션쇼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 역시 흥미로운 일이었다. 기사는 이 기사를 통해 모더니즘과 개성, 유행, 미의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패션쇼를 묘사하고 그에 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²⁶⁾ 이 시기 언론에는 유행 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성에 대한 반론으로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이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개인’, 그리고 ‘개성 표현 기회로서의 유행과 개성 발현 무대로서의 근대에 관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었다.

리포베츠키(Lipovetsky)는 유행의 불안정성, 끊임없는 변화에 대해 개인의 외형이 더 이상 오래된 법률과 관습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유행이 인간의 결정과 순수한 욕망에서 비롯된 변화 능력과 새로운 유행을 고인해 내는 능력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다. 근대의 개인은 자신의 외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당대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기준만이 유행에 한계를 부여한다는 의미다.²⁷⁾ 근대 이행기,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난 유행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한 것은 이량(李亮)이었다. 그는 유행을 “개별적 욕구의 발로(發露)”라고 보았다.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반영이자 현실의 불합리함을 타개해 보려는 시도라는 데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유행의 동기가 “현실불만”에 있으며 그 현상이 “새로운 욕구의 발작”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홀용한 창작이요, 또 신생의 충동”이라고 설명했다.

流行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요? 원 댁치 안으신 말씀이요 이것은 오히려 큰 페퍼트 主人의게

25)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8일.

26) 『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19일.

27) 리포베츠키(이득재 옮김), 앞의 책, 39-40면.

무르시던지 그러치 안으시면 종로행진곡을 부르고 있는 모더니-廣告業者가 滋味있고도 魅力있는 新案을 提起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의게 한 個性이요 또 得意한 生活입니다. 그런데 나는 商人도 아니요 廣告業者도 아니요 百貨店店員도 아니요 또 新聞記者나 무슨 스트리트 뺨이가 아닌 이상, 참말 流行性的의 眞實을 말슴하기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流行이라는 그 世態가 었던 사람의 시작으로 또 었던 사람들의 追隨를 바더오던지 其 動機와 動機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現實不滿에서 새로운 慾求의 發作이니, 이것은 훌륭한 創作이요 또 新生の 衝動이외다.²⁸⁾

이것은 근대적인 현상으로서 유행이 전통 혹은 전통사회의 복식제도에 순응하고 살았던 대중들로 하여금 일률적인 제도에 따라 유지되었던 집단적 동일시를 벗어나 개성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는 데 의미를 둔 해석이었다. 이를 통해 집합적 성향을 가진 유행의 이면에 개인적인 특성과 개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데 대한 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적어도 유행에서 나타나는 집합성은 봉건사회에서 나타났던 복식의 집단적 동일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특정 품목이나 스타일에 관한 선택 자체의 집합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외형의 구성과 제도적 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근대적 미의식 형성 및 스타일 갱신 계기로서 유행

복식 유행의 생성과 그것을 채택하는 대중의 움직임은 새로운 혹은 변화하는 미의 기준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유행이 근대적 미의식(美意識) 형성의 계기로 인식되면서 일련의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특히 사람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실용성보다는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용과 미라는 대립적인 관념을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때의 시각 중 하나였는데, 유행의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즉 “어떠한 정도의 유행은 의상미를 발휘하고, 따라서 입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미감을 만족시키고 심신을 새롭게 하는 점”이 있으므로 추구될 만한 것이었다.

무어나 실용적인 것이며 쓰다쓰다 못하여 해지고 떨어져서 이제는 더 쓸 수 없다는 데까지 써도 좋겠지만은 의복에 있어서는 이미 아름다움 즉 미의 요소가 실용적 요소와 비등하거나 혹은 이 미요소가 그전부의 목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 미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연히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유행이라는 것이 중대한 가치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목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르는 것은 어느 것에나 마찬가지인 사람의 본능적 요구이겠고 또 유행이 너무 심하면 사치에 흘러서 풍교상 좋지 못한 폐단도 있으니 가령 근자에 파리에서 하룻밤 야회에 입으려고 수만금을 들여서 유리같은 것으로 야회의 드레스를 만들어 입은 귀부인이 있다는 등 사실은 너무나 극단

28) 李亮, 1929 「流行! 新年 새流行! 希望하는 流行·豫想하는 流行」『別乾坤』 제18호, 開闢社.

가는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유행이 아주 불필요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 부인네들이 입으시는 치마저고리만 하더라도 얼른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매우 단조한 것으로 유행이 없는 것 같지마는 자세히 보면 소매통이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하고 치마 길이가 발등을 넘던 시대로부터 무릎팍에까지 기어올라가는 근자까지의 변화과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여러 차례가 유행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정도의 유행은 의상미를 발휘하고 따라서 입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미감을 만족시키고 심신을 새롭게 하는 점으로 없지 못할 것입니다.²⁹⁾

1920년대의 신문과 잡지에는 조선옷의 단순함과 미감 부족, 다양성의 결여 등을 지적하는 기사가 자주 실렸다. 조선옷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통치마 유행과 같은 현상,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짧아지기 시작한 치마 등은 이전에 비해 모두 과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짧은 치마와 스타킹, 짧은 양말 등의 몇몇 유행은 이전까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던 각선미나 인체의 곡선미와 같은 새로운 미적 대상과 표현 영역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로 간주되었으며³⁰⁾ 이러한 평가는 유행을 추종하는 대중들의 행위를 '새롭고 변화된 미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한편 유행을 평가하는 여러 시각 속에는 유행의 특성인 '새로움'을 순환성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때의 순환성은 통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거의 유행이 다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공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구에서 만들어진 유행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까지 이르렀다는 인식 모두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 속에서 유행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처럼 전제되었고,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서 과거와 현재의 풍조가 공통분모를 이루어 창출된 현상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담화 중에도 몇 번이나 한 말이니까 드른 사람은 혹 기억도 할 것이다. 사람이 □거생활 의□이 강렬한 도회생활을 하는 이상 유행이라는 것은 필연적 부속물이라기보다도 신기(新奇)를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 조건인가 한다. 유행이 회전하는 것도 과거의 유행형을 갈망하는 것도 복고하는 부흥(復興)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新奇)로 회전하는 풍조가 우연히 과거의 그것과 협합(峽合) 혹 유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상적 관찰자는 유행은 반복한다고 하여 여차한 형식은 수년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비소(鼻笑)에 부(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유행은 역시 새 환경에서 생긴 것이지 결코 부득이하여 과거의 유행을 재현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³¹⁾

근대적 현상으로서 유행은 '변화'를 전제로 기존의 관습이나 스타일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

29) 『조선일보』 1929년 9월 4일.

30) 『조선일보』 1939년 6월 2일.

31) 『조선일보』 1939년 5월 13일.

움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스타일과 행위 양식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갱신’과 ‘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유행은 과거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것까지 갱신하는 새 것, 변화의 원천으로 파악되었다. 소극적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새로운 품목과 스타일의 등장일 뿐이지만 과거로부터 지속 향유되었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특성이 두드러질 때, 유행의 새로움은 혁신의 차원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

유행이 가진 이 모든 특성은 ‘새롭고 낯선’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유행의 이면에 존재하는 ‘혁신’이라는 잠재적 명제, 그리고 ‘근대성’과 맞닿아 있었다. 물론 이때의 혁신은 기존의 것을 뒤엎는 완전한 재조직화와 재구성, 극단적 전환의 양태라기보다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극과 추동력·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행의 속성 자체가 사회에 관한 전복(顛覆)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과 낯설음을 동반한 변화의 한 양태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행을 ‘새로운 시간을 육화시킨 사회적 관계이며 근대적인 것에 대한 열정을 처음으로 표방한 것’이라고 주장한 리포베츠키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근대에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것’이 곧 세계적인 가치의 원천이자 사회적으로 뛰어난 것이라는 징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³²⁾ 대중들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복식과 외형을 통해 자신들의 성향을 보다 강력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이고, 그것을 가시화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유행은 분명 이전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유행은 당대의 언론에 의해 근대적 인식과 기준에 따라 새로운 미의식을 형성하고 낡은 것을 바꾸어 스타일을 갱신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변화무쌍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었다.

3. 유행 공간과 주체에 관한 이분법적 인식

1) 조선 ‘안’과 ‘밖’의 유행 격차

유행에 관한 사회적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당대의 언론이 주목한 또 하나의 대상은 유행의 이행 경로였다. 이것은 유행이 어디에서 나타나 어디로 가는가, 누가 그 유행을 수용하고 추종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었다. 유행을 근대적 현상이자 경험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은 근대적 환경이 조성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근대적 인식을 수용한 주체에 의해 더욱 활발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에서의 유행 발현과 전파에 회의(懷疑)를 표하는 측에서는 제대로 된 유행이 존재하지 않

32) 리포베츠키(이득재 옮김), 앞의 책, 39면.

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당대에 이미 경성에서 나타나는 유행의 실제 발원지가 서구 혹은 일본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조선이 근대적 유행 발원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성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퇴물이 밀려와 다시 유행하는 곳일 뿐이었다.

우리나라 부인네들이 밧고 다니는 양산은 모다 일본 사람의 손으로 만드러지는 것이다. 그럼으로 일본에서 류행된 퇴물이 밀려나오는 것이다. 가랑 금년에 옥색빋이 동경에서 류행되었다고 하면 그빋이 그이듬해 조선으로 나아오게 된다. 언제나 우리의 손으로 류행을 짓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양산을 밧고 다니게 되리오 우리는 이 압호로 장차 그러케 될 것을 밧거니와 지금에 우리는 서양 부인네들과 동양 부인네들의 금년의 류행된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의 류행을 짓고 십다.³³⁾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수입된 상품은 엄연히 일본산이지만 사실상 서양의 유행을 일본에서 수용하여 생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에 나타난 유행은 서구의 유행이 일본에 들어와 퇴물로 전락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상륙한 것에 불과했다. 비록 단편적인 몇 줄의 언급에 불과하지만 1926년 4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의 작성자가 서양과 동양 부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행이 무엇인가를 참고하여 조선만의 유행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조선에서 나타난 유행이 서구와 일본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했다.

1928년 조선일보에는 “조선에 이입되는 잡화 일본에서 유행에 뒤진 것”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 오사카에서 유행에 뒤처진 상품을 수입하여 조선에 파는 상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유행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차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새 경영법이자 훌륭한 사업수완인 듯 소개되었다. 이때 조선의 유행은 일본에 비해 1~2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본에서 유행이 지나 팔리지 않은 상품을 경성에서 판매한 뒤, 그마저 재고로 남을 때에는 다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일련의 흐름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상품을 매개로 한 복식 유행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되어 어떻게 전파되고 있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일반상점은 조선내의 구매력 후퇴로 불황인데 새로 경영법을 성공하는 자는 가장 성공하게 된 것은 대관(오사카)방면으로부터 동지역에서 이미 유행에 뒤진 잡화를 매(買)하야 (수출)하는 □다. 크게 하는 것은 대관동경에 거재원을 두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 사오십일 무역으로 대체 조선내 잡화유행은 일본에 비하야 일어난 뒤져 있는데다가 조선인 □유행은 다시 뒤져 있음으로 일본에서 불매에 곤란을 겪은 잡화를 사다가 조선인에게 팔아 십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상점도 있

33)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

다고 하는 바 경성에서 불매의 것은 다시 지방으로 보낸다더라.³⁴⁾

1931년 이서구(李瑞求)는 조선 유일의 근대 도시 경성을 예로 들어 조선에 제대로 된 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했다.³⁵⁾ 이서구가 보았을 때 경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행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간이었다. 근대 도시 경성에 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조선에 유행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조선에 제대로 된 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유행을 창조하고 이끌어갈 주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무용가나 배우, 사교관과 같이 유행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패션리더들이 없으므로 유행이 생성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었다. 모던 걸이나 모던 보이에 의한 유행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름 높은 배우나 미인과 같은 패션리더들이 등장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었다. 둘째, 유행을 추종할 만한 경제력이 부족하며 혹 있다고 해도 그것을 소비로 연결시킬 만한 상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생활에 안정이 생기고 “돈냥이나 넉넉히 생기기 전”에는 유행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셋째,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유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성에서 그러한 매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넷째, 최첨단 유행이 늦게 소개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최첨단 유행이 경성 유행의 발원지인 진고개에 등장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경성에서 나타나는 유행 또한 보편적이지 못하며 그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것이 제대로 된 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그의 이러한 분석을 모두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에 서구와 일본의 유행을 전달하는 기사가 빈번하게 게재되었고 그것을 모방하는 데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각론도 이어졌다. 즉 유행 전과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본과 조선 간의 격차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은 이미 유행이 나타나면서부터 줄곧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조선은 언제나 일본의 지나간 유행을 이어 받아 뒤늦게 실천하는 곳일 따름이었고 유행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모던 보이와 모던 걸, 여학생과 신여성 등은 자발적 의식을 가진 주체라기보다는 막연한 동경과 어쭙잖은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서양식 옷차림을 모방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34) 『조선일보』 1928년 3월 11일.

35) 李瑞求, 1931 『新女性과 花柳界』 『別乾坤』 제36호, 開闢社.

2) 유행 선도 및 독점 공간 '경성'

1900년대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 양상은 도시화와 서구화로 집약할 수 있다. 도시는 서구적 근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공간 모델이었으며, 근대적 주체 형성의 핵심에 도시 체험이 존재했다.³⁶⁾ 이 시기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은 모두 '근대적인' 것으로 비쳐졌고 그러한 경험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도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진보된 '문명적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³⁷⁾ 근대의 경험은 오직 도시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근대적 생활이 존재하는 공간 또한 도시였다.

조선 안에서 근대가 가장 빠르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근대화는 유행의 발현과 전파라는 근대적 현상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요인이 되었다. 근대화의 속도와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경성 대 지방'이라는 구도가 설정될 수 있을 만큼 이 시기 근대 도시 경성은 지방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점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유행이 발현되고 전파, 확산될 가능성 또한 도시 공간인 경성에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대중들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성은 최첨단 유행의 발현지이자 유행이 일상화된, 그것만으로도 '지방'과 격을 달리하는 공간이었다.

경성과 지방의 차이는 상설화된 백화점이나 부정기적이지만 대규모로 열리는 박람회와 같은 소비 기회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양식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차별화되었다. 경성은 상품 소비가 가능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소비할 여력을 가진 소비대중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새로운 문물과 상품이 끊임없이 소개되고 진열되어 소비대중의 욕구를 자극하는 백화점과 상업시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유행하는 모든 것이 전차와 같은 근대적 교통수단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기도 했다. 즉 상품을 매개로 한 유행이 발현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유행을 생명으로 하는 백화점은 잡화 일용품 중에도 젊은이의 장식품인 의복 구두 화장품 등을 찬란하게 장식하여노코 그 아페는 굵고 얽전하고도 현대적 감정을 다분히 가지고 있으며 유혹적으로 된 미인 '썸스걸'이 은근한 이양을 부러 '썸스'를 하고 있다. 이 썸스가 수백축광의 전등 아래에서 가장 발개되는 것이 불야성의 스테지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썸스'를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다카티 경쾌한 기분으로 죄없는 감정으로 주고받는 것을 볼 때는 도회인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 것이다.³⁸⁾

36) 정혜영, 2004 「여성노동공간의 다양화와 식민화」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태혜숙 편), 여이연, 323면.

37) 朴敬植, 1926 「都會의 女子와 鄉村의 女子」 『新女性』 4권 8호, 開闢社.

38)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그러면 유행은 어느 곳에서 던파되느냐 던염병에도 공기던염이니 접촉던염이니 잇는바와가터 유행에도 전파되는 증개괴관이 잇을것이다. 우리경성가터 쓸쓸하기 죽은 듯한 도시의 꽃과 가튼 유행은 대관절 엇더한 경로를 지나 전파되는가. 그것은 첫채 집채만한 싹데리아가 몸부림을 치고 다니는 그 속에서 서서히 던파가 되는 모양이다. 집채가튼 싹데리아는 무엇을 가튼킴인가 슬프다. 그것은 별것이 안이다. 던차이다. 그랬다고 던차의 지체를 앓다는 것은 안이다. 다만 그쳐대를 표증하는 부녀자의 싹유행이 던차몬지속에서 던파된대서야 좀섭섭하다는 말을 해들뿐이지! 꽃가튼 젊은 부인이 던차에 오른다. 남자들은 위선 그의 얼굴에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가튼 년갑세의 녀자들은 위선 그의 의복가음 물색 비느질 마름질에까지 심신한 토구를 하여 조흔덤 달는덤을 반다시 다르는 것이다. 길에서도 서로 맞나기는 하나 가튼길을 멈추고 볼 수 업스닛가. 던차가 제일 적당한 자리 가 되는 것이다.³⁹⁾

“쓸쓸하게 죽은 듯한 도시 경성의 꽃과 같은 유행”이 전파되는 경로는 전차였다. 전차는 실제로 경성의 상업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대적 소산이었다. 그리고 길에 서서 마음껏 구경할 수 없는 대상을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유행 발현 및 독점 공간으로서의 경성의 위상은 이렇게 소비를 뒷받침하는 상업적 환경과 전파 경로, 유행을 추종하는 대중의 존재를 통해 확립되고 있었다.

이 시기 경성에서 나타나는 유행에 관한 언론 매체의 언급은 복식, 외형과 관련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식 유행은 사상이나 사조의 유행처럼 무형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과 결과가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특정한 유행 품목과 그것을 선호하는 주체에 관한 다각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한 기사의 상당수가 경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유행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유행의 품목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행하고 있는 간에 그것은 언제나 ‘경성(서울)’에서 먼저 발견되고 확산되는 현상처럼 서술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외국 사례를 소개한 경우를 제외하면, 복식 유행과 관련된 언론 매체의 기사 대부분은 근대 도시 경성에서 일어나는 유행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간혹 유행의 구체적인 양태와 주체, 전파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층위들이 서로 중첩될 경우 명확하게 ‘경성’ 혹은 ‘어느 지방’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밝히곤 하였으나 이러한 언급이 없을 경우, 대개는 경성의 사례로 보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이 시기 유행을 전하는 기사의 상당수에 유행하는 물품의 가격, 종류, 유행의 흐름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경성의 백화점이나 전문 상점들로부터 제공된 것이었다. 따라서 유행이, 더군다나 외형을 담보로 한 최첨단 복식 유행에 관한 기사가 지방의 사례나 정보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39) 李瑞求, 앞의 글.

1925년 동아일보에 실린 사직동인(社稷同人)의 글 「경성여자의 유행적 심리」에 따르면 유행이 발현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유행성과 모방성, 그리고 우월성에 관한 욕구 때문이었다. 유행하는 것, 사치하는 것을 모방하고 그 속에서 우월하려는 성향이 바로 “유행성”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성은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욕구의 강도와 빈도는 성별과 지역에 따라 특수하고 편향된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유행성(流行性)과 모방성(模倣性)과 우월성(優越性)이 있어서 일반의 유행되는 것은 따라가고 싶어하고 남의 사치한 것을 보면 자기도 그와가치 하고 싶어하며 그가치 사치하여지면 그때에는 또 남보다도 더 한층 사치하러하는 것이 일반의 공통덕 유행성 심리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여자들은 그갖은 심리가 일층 강렬하며 그 중에도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도시생활을 하는 ‘서울’의 여자들에게는 더한층 유행성 심리가 심하다 하겠습니다.⁴⁰⁾

이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강렬한 유행 심리를 품은 것은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도시생활을 하는” 경성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당대의 유행을 가장 욕망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였다. 지역·성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중첩하여 구분한 것이지만 기사의 초점은 뚜렷하게 설정된 강조부호 속의 ‘서울’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시골’로 일컬어진 지방의 여성들은 그러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 경성에 관해 막연하고도 깊은 동경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⁴¹⁾ 언론 매체의 기사 속에서 유행에 민감하고 강한 호기심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언제나 경성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이었다.⁴²⁾

경성에서 생성되는 복식 유행은 또한 ‘근대적 경성’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문물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했다. 굵이 아찔하게 높고 색마저 화려한 ‘잡색’ 구두 유행은 댄스홀이 있는 도시 경성에서, 댄스를 여가로 혹은 생활로 즐길 수 있는 계층으로부터 발현되어 전파되는 유행이었다.⁴³⁾ 유행을 만드는 것도 수용하고 추종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향유될 수 있는 공간인 경성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댄스홀도 없고 댄스를 할 만큼의 여가도 없는 시골, 지방에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사치였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환경이란 경성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성은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주체들이 확보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집단적 특성을 외형으로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는 독보적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 발현되는 유행은 근대 도시 경성의 면모와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주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했다.

40) 『동아일보』 1925년 8월 8일.

41) 『동아일보』 1926년 10월 6일.

42) 觀相者, 1926 「女性의雜觀雜評」, 『新女性』 4권 3호, 開關社.

43) 『조선일보』 1931년 1월 2일.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유행은 경성에 근대적 공간이 들어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현되고 쇠퇴하기를 반복했다. 그 과정 속에서 유행은 근대적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종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최첨단 유행 품목을 두루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고 확보할 공간이 근대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1929년, 다가오는 유행을 예측하는 기사에서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처럼 근대적 복식을 입은 주체를 위한 공간, 즉 종로에 새롭게 등장해야 할 ‘근대적 공간’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기도 했다. 최신 유행을 추종하느라 오페라백을 들고 구두를 신은 남녀가 낮은 테이블에 앉기 위해 구두를 벗고 백을 내려놓은 채로 탕반을 먹는 모습은 “초기번역극”을 보는 것처럼, 근대의 외형과 근대적이지 못한 환경의 어색하기 그지없는 조합이었다.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근대적 공간이 창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⁴⁴⁾ 비록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닿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시기 유행과 그것을 추종하는 주체 혹은 집단의 외형적 변화, 그리고 대중이 모이는 도시 공간 역시 그러한 상황과 변화에 적합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은 지방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복식 유행을 선도하고 독점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각 속에는 두 가지 구별이 중첩되어 있었다. 하나는 근대 또는 근대화가 도시와 지방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전제였고 다른 하나는 도시 공간 내에서도 근대가 좀 더 강력하게 발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거리를 만들어 내어서 그것을 길러가는 근대적 대도시라는 괴물의 소산”⁴⁵⁾이 바로 근대 생활이었고 도시 공간 가운데서 가두, 즉 길거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눈요기를 하는 공간이고 다른 근대인들을 관찰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 유일의 근대도시 경성에는 “도회인의 우울한 기분을 일전하고 생활을 변화케”하는 “네온싸인의 유혹”이 존재했고, “젊은이들의 감정을 이상하게 흥분시키고 유행을 생명으로 하는 백화점”이 “도회인의 향락장이자 오락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⁴⁶⁾ 경성에서의 근대 생활이 “종로 네거리라든지 진고개라든지의 포도(鋪道) 위에 또는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음악회 등의 의자 위에서 영위되는” 것이자, “어디선지 모르나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가두(街頭)의 생활”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유행은 근대 도시 경성의 면모와 새로운 주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다. 어떤 유행이든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기한 혹은 우습고 낯선 복식 유행이 등장하면 그에 관한 설명에는 언제나 ‘근대(현대)’, ‘요즘’, ‘경성(서울)’이라는 단어가 뒤따랐다. 시대적으로 근대 이행기였고 이 시기에 나타난 복식 유행의 속성상 시간적 한계는 언제나 ‘요즘’일 수밖에 없

44) 李泰俊, 1929 『流行! 新年 새流行! 希望하는 流行·豫想하는 流行』 『別乾坤』 제18호, 開關社.

45) 赤羅山人, 1930 『모던 數題』 『新民』 제59호, 新民社.

46)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었다. 조선 내에서 근대적 문물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 근대적 유행이 가장 빨리 발현되는 공간 또한 경성뿐이었다. 여기에 유행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성을 더하면 유행의 속성과 특징, 공간적 경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세 가지는 근대적 유행이 발현될 수 있는 조선의 상황과 공간, 주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으며 근대적 공간으로 규정지어진 경성을 지방이라는 보편적이고 단순하며 전통적인 공간과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3) '진고개'와 '종로'의 유행 편차

경성과 지방이 복식 유행의 발현과 독점력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었던 것에 더해 비슷한 시기, 경성 내에서는 다시 공간에 따른 복식 유행의 편차가 뚜렷이 인지되고 있었다. 경성 내에서 유행이 발현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남촌의 진고개와 북촌의 종로였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소비 공간인 상점들이 존재한 거리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근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일본인 거주 지역인 남촌이었다. 일본인들의 서울 거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기는 1885년이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거주지로 정해진 곳이 바로 진고개 일대였다.⁴⁷⁾ 그 이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됨에 따라 재경(在京) 일본인 수가 급증하였고 그들의 거주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일본인의 남촌'과 '조선인의 북촌'으로 나뉘었다. 거주지 구분을 통해 도시 공간이 이중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남촌의 진고개는 소비 활동이 활발한 공간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이 즐비한 곳이었다. 경성에서 전등이 가장 먼저 가설된 곳도, 방울꽃 모양의 아름다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진열창이 불빛과 어우러져 불야성을 이룬 곳도 진고개였다. 일본인이 점차 북부로 진출함에 따라 북촌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남촌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식민지적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남·북촌의 대조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⁴⁸⁾ 백화점과 상점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남촌과 "음울하고 어둡고 무기력한"⁴⁹⁾ 북촌은 같은 경성 내에서 전혀 다른 근대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진고개와 경쟁하는 곳으로 대비된 종로는 조선인 거주지역인 북촌에서 가장 변화한 장소였고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고개 상권이 치츄 확장되고 조선인들마저 진고개의 일본인 상점을 찾아가는 일이 늘어나면서 상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⁵⁰⁾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복식 유행에 관한 기사의 서술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진

47) 鄭秀日, 1929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別乾坤』 제23호, 開闢社.

48) 김영근, 2000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경성에서의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7집, 15-18면.

49) 『중앙일보』 1931년 11월 30일.

고개에서 발견되는 유행은 최신의 것이며 완벽하고 완결된 것, 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막 수입된 최첨단의 것으로 여겨져서 “진고개에서 갖다 놓는대로 사다가 쓰니까 추종하는 외에는 도리가 업⁵¹⁾”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진고개 백화점의 상품 구비력은 종로를 압도하고 있었고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첨단 유행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역시 진고개였다. 최첨단 유행을 보려면 진고개로 가야 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유행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 역시 진고개였다. 종로 네거리에서 볼 수 없는 유행도 진고개 본정통이라면 흔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어떠한 유행이 최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간단했다. 진고개에 진열된 상품이려면 그것이 바로 최신 유행이었다.

이 사진의 나타난 양산은 일본서와 미국서 급년에 유행될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양산이 데일 만히 팔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조선사람의 취미에 마지라라고 생각한다. 양산빛은 검정이나 혹은 수박빛(수박빛이래야 우리 조선 사람의 드리는 것과는 달다)이오 혹은 자주빛이오 가장자리를 희게 둘너 아로 삭인 모양이 꼭 우리 조선 사람의 베개모나 마늘방석을 꾸미는 란간과 흡사하다. 급년에는 양산빛보다 가장자리를 꾸미는 이 란간이 유행하는 중심이 되리라고 한다. 그럼으로 빛은 엷더한 것이든지 사람을 따라 마음대로 골낼수 있스나 가장자리에 란간을 아로삭인 양산이래야 유행하게 될 모양이다. 본정통의를 가보니 과연 이러한 종류의 양산이 만히 화있다. 급년에는 유행이 꼭 빠른 모양이다. 그러나 이즉 종로 네거리에서는 그러한 양산을 볼 수 없다.⁵²⁾

반면 종로는 다분히 조선인 중심의, 그리고 채 완결되지 못한 유행과 어설픈 모방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종로에서 가을의 정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옷차림과 모자의 변화, 즉 계절에 따라 바뀐 유행을 관찰할 때뿐이었다.

해질녘의 종로네거리는 무단히 밝다. 조선옷자리도 밧부거니와 양복자리는 몸매부터가 밧분 듯하다. 색짓은 스코치 시골 면서기가튼 탄색 스푸링 몸에 착 맞는 새과란 푸리노 택시-드 깡장세루 炭色 오-스테드...모다 가을빛을 장식한다. 동복을 입은 巡査까지도 제격에 얼너보인다. 말속말속하게 차린 양복자리들을 보고 섯느라니가 알구즌 생각이 난다. 가령 내가 절세미인이라고 하고 지금 오고가는 양복자리들은 나의 하는 말을 꼭 그대로 시행한다는 두가지 가정 미테서 내가 지금 구슬을 글나는 듯한 목소리로 「諸君! 諸君 中에 단 한폰이라고도 지금 입고 있는 양복갑을 덜 준 사람은 입을 양복을 전부 버서노코 알몸으로 가시오」 한다면? 그러면 종로 일대는 금시에 襪體洪水時代가 될 걸?⁵³⁾

50) 申泰翊, 1931 「和信徳元 對 三越丁子 大百貨店戰」, 『三千里』 제12호, 三千里社.

51) 李瑞求, 1931 「新女性과 花柳界」, 『別乾坤』 제36호, 開關社.

52)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

53) P·S·S, 1930 「가을거리의 男女風景; 鍾路 거리의 洋服쟁이들」, 『別乾坤』 제34호, 開關社.

진고개와 대비되는 조선인 지역,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유행과 옷차림은 ‘신사’, ‘근대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신 ‘양복자리’, ‘양복쟁이’로 표현되고 있었다. 근사한 춘추양복을 차려 입었다고 해도 종로를 걷는 주체들의 양복은 아직 값지 못한 할부가 남아 있는 것, 빈곤한 처지로 ‘전당국(전당포)’에 맡겼다 찾아온 까닭에 나프탈렌 냄새가 가득한 것, 의식은 바꾸지 않은 채 걸모양만 근대를 따라 변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다.⁵⁴⁾ 즉 새로운 계절에 나타난 최신 유행을 따르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제력과 여전히 세련되지 못한 어색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도시 경성이 당대 언론과 당대인들에 의해 유행을 독점하고 선도하는 공간으로 평가됨과 더불어 그 안에서는 최신 유행의 존재 여부, 유행 상품 확보 가능성에 따라 다시 새로운 공간 구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 경성 내에서 이루어진 유행 공간 구획을 전적으로 진고개와 종로에서 나타난 유행의 위상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미 드러난 것과 같이 그 배경에는 엄연히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경성 내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거류지역 및 상권 구분이라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고, 그러한 상황적 조건은 당대 언론과 당대인들이 유행을 평가하고 유행 공간을 인식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은 식민도시에서 나타나는 이중도시(dual city)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서구 학자들과 김백영의 논의를 통해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경성의 특징이다. 김백영은 식민도시가 토착 집단에 대한 외래집단의 지배의 공간이었고 양자의 문화적 이질성이 사회적·공간적 격리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토착민들의 자생적 주거지는 전통적·전근대적 성격을 띠고 식민권력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는 근대적·서구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결과 근대 도시가 물리적으로는 병치되어 있으나 건축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구별되는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⁵⁾ 마찬가지로 유행에 관한 당대의 평가와 그것을 공간적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 역시 이러한 경성의 공간 구획 및 성격 차이에 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거류민들의 근거지였던 진고개 일대의 변화는 종로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 거류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일본 자본의 기반 아래 조성된 소비공간의 존재는 그렇게 구획된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유행의 위상과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희권 역시 도시 공간의 배치와 구조, 규모, 디자인을 들여다보면 그 도시의 역사를 비롯해 지역민들 간의 지배/피지배의 권력관계, 구성원들의 성향 등 제(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⁵⁶⁾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 유행과 유행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경성에 조성된 공간 구획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을 것이다.

54) 松姬, 1930 「가을거리의 男女風景; 安洞六거리에서」 『別乾坤』 제34호, 開關社.

55)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문학과지성사, 122-123면.

56) 장희권, 2009 「근대 도시공간과 사유방식」 『뫼히너와 현대문학』 32, 205면.

4) 유행 지체 및 계도 공간 ‘지방’

1910년 이래로, 언론 매체에서 경성은 줄곧 근대적 복식 유행이 발현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춘 곳, 유행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과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인적 토대를 갖춘 곳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동시대에 지방은 그와 상반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우선 지방은 경성과 비교했을 때, 유행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곳이었다. 유행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경성으로부터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게 전해져 경제적 여력을 갖춘 일부 계층에게로 확산되는 제한적이고 미미한 현상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때의 사회적 시선은 유행을 따르거나 새로운 복식을 구비하려 애쓰는 지방 사람들의 태도와 심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2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고무신 유행 관련 기사를 보면 그러한 차별적 평가의 일면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작년이래로 ‘고무신’이 엇지 잘팔리는지 경성은 물론이요, 지방 벽촌에서 국다란 집신을 신든 사람까지 필경은 물녕물녕한 ‘고무신’을 신게 되어 집석이를 삼어파라서 한푼두푼식 부시쌈지 속에 똥똥 말어너헛든 귀한 돈으로도 서울가는 편이나 장꾼에게 부탁하여 ‘고무신’을 사다가 신고싹흔것은 무슨리유인가. 적어도 ‘고무신’ 한켠레를 사려면 집신 네켠레나 또는 다섯 켠레를 삼지 아니하면 아니되며 결국 그돈은 호박씨를 까서 한입에 넣는 세음으로 모다 ‘고무신’ 만드는 회사의 재산이 되어 버린다. 경성시내에만 팔십오호 작년에 제조한 조선신 통계가 칠십삼만구천칠백오십삼켠레요 그 가액이 일백오십일만사천팔백삼십육원이며 작년부터 금년륙월까지 팔닌 ‘고무신’의 가격은 오십팔만사천사백원에 달하얏스나 ‘고무신’의 유행으로 말하면 작년 가을이후부터 심하여 금년 봄과 여름에는 더욱 심하얏스즉 ‘고무신’의 세력은 일본에서는 임이 위생에 적당치 못하다는 평판이 유행하여 전과 가치 사용치 아니하는 까닭에 ‘고무신’을 제조하든 회사들은 전문으로 조선으로 수출한 고무신을 제조한다하나 경성에서는 요사이 ‘고무신’이 전과가치 팔리지 아니하며 지방 사람들이 만히 사갈뿐이라한다. 그러나 지방 사람들도 집신을 파라서 ‘고무신’을 사는 것이 과연 어느 때까지 유행될는지 모르겠다더라.⁵⁷⁾

이 무렵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무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국다란 집신을 신든” 지방 사람들까지 물녕물녕한 고무신을 신을 정도였는데, 실상은 질기고 튼튼한 고무신의 실용성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사는 당시의 지방 사람들이 고무신 한 켠레를 사려면 짚신을 너덧 켠레 삼아 팔아서 돈을 모아야만 간신히 그 값을 충당할 수 있으며 그 돈이 모두 고무신 회사의 재산이 되어 버린다고 전했다. 고무신을 선호하고 구입하는 지방 사람들의 태도를 실용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의미하고 낭비에 가까운 유행처럼 묘사하고 있었던

57) 『동아일보』 1922년 8월 11일.

것이다. 이러한 시선을 반영하듯 짚신을 팔아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서울 가는 장꾼에게 부탁하여 고무신을 신고 싶은 것이 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지방 사람의 고무신 소비 행태를 “호박씨를 까서 한입에 넣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단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기사에서는 경성에서 이미 고무신 유행이 시들해졌으며 오직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같은 시기, 조선 전체에서 고무신이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 불과 넉 달 뒤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중 열의 칠팔이 고무신을 신었다⁵⁸⁾”는 기사가 등장할 정도였고 고무신에 대한 수요와 소비에서 경성은 결코 지방에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오직 지방 사람들의 행위뿐이었다. 모범부락사업 등을 이유로 고무신 ‘전폐(全廢)’와 짚신 삼아 신기가 장려된 것 또한 지방에만 해당된 정책이었다.⁵⁹⁾

지방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행 혹은 상품 선호의 직접적인 양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925년 동아일보에는 “지방단평(地方短評)”이라는 단신이 소개되었는데, “지방에서는 물산장려(物産獎勵)를 선전하는데 진남포에서는 반대로 외국품을 장려하는지 여학생계에는 삼원이상 팔원의 고가(高價)인 목도리가 보통 사용된다고, 외국품애용화나 맨들지⁶⁰⁾라는 것이 전문(全文)이었다. 그 목도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계기로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경성의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목도리가 유행했지만 기사의 방향은 사뭇 달랐다. 대개 모양새나 실용성, 경제성과 같은 측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무조건적인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당시 지방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의 예와 견주어 외국품 애용회를 만들려는 비난이 가해졌을 뿐이다. 즉 상황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여타의 기사와 달리 유독 지방에서 나타난 유행과 그 문제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가치개입이 일어나고 있었다. 더구나 특정한 유행을 마치 지방 전체의 폐단처럼 확장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1932년 1월 28일자 조선일보에는 공진회에서 주최한 박람회를 보러 상경한 시골 사람들을 묘사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시골서는 그래도 몇 천 몇백석을 하느라고 어굴한 사람들에게 악착한 짓도 만히 해서 이죽도 남중 녀중을 거느리고 거드러거리고 내노라하고 살지만 양복을 걸쳐도 서울에 오면 변함없는 붓다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록 시골에서 지주의 위치에 있지만 근대 도시 경성에서 누릴 수 있는 근대적 경험과는 거리가 먼 군상들이었으므로 근대인도, 합리적

58) 『동아일보』 1922년 12월 20일.

59) 『學校建設로 고무신을 全廢, 荏子面民熱誠(木浦)』 『동아일보』 1923년 12월 13일; 『院城里振興會의 模範事業, 白衣全廢 고무신 등 日用品買入禁止, 경제방법 講論 實行하야 效果어더(天安)』 『동아일보』 1924년 2월 12일 등의 기사 참조.

60) 『동아일보』 1925년 1월 30일.

으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었고 유행에 관한 인식이나 개념도 갖지 못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평가였다. 반면 도시인, 즉 경성의 대중들은 유행을 욕망하고 창출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이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근대적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사람들과 확연히 차별화되었다. 당대의 언론 매체는 이들 간에 존재하는 ‘근대에 관한 경험적 격차’를 주시하였고, 근대적 대중이 되지 못한 지방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불신과 무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유행일지라도 그것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1934년 동아일보에 실린 “농촌 어촌에 인조견(人造絹)이 유행, 부인금족운동(婦人禁足運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지방에서 나타난 유행과 그에 관한 지방 사람들의 선호, 그리고 기사를 쓰는 주체가 가진 시각적 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같은 시기 조선 전체에서 인조견으로 만든 의복이 유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어촌 여자들에게 그것이 선뜻 허락될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은 그들 ‘분외(分外)’의, 즉 분수를 넘어서는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시급히 교정해야 할 폐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한 일처럼 여겨졌다. 결국 조선 여성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인조견 유행이 유독 이 지방에서만 부인금족운동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소비 감소를 우려한 지방 시장 상인들이 그 운동을 반대하는 부차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⁶¹⁾

당대의 유행, 특히 외형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복식 유행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유행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조건과 제한성’이 전제되어 있었고,⁶²⁾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서구-일본(동경)-경성(진고개-종로)-지방으로 이어지는 유행의 확산 경로를 마치 확정적이고 순차적인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유행과 유행을 따르는 주체 또한 그러한 구도 하에 놓이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은 당대에 이미 소비를 위한 환경이나 조건이 미비하여 유행이 발현되거나 전파되기 힘든, 그리고 근대적 유행이 가당치 않은 공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공간의 근대화 정도에 기반한 편견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짓기로 이어졌다. 최신 유행이 생겨나고 향유되는 도시 공간인 경성의 대중과 지방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커다란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유행에 관한 기사 속에서 지방 사람들은 상품 소비에 불합리한 점이 많고, 제대로 된 유행을 따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유행을 경험할 수 없는 경제적 환경

61) 『동아일보』 1934년 1월 3일.

62) 신태익은 1932년 조선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을 언급하며 “지방에는 이런 것도 없거나와”(申泰翼, 1932 『東亞和信 兩百貨店 合同内幕, -그 내용과 今後 觀望』 『三千里』 제4권 제8호, 三千里社)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백화점은 경성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근대적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상업시설이었다. 이처럼 당대의 시선 속에서 지방과 경성은 근대적 특성의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근대적 소비 공간이 없다는 것은, 상업적인 기반을 필요로 하는 근대적 소비와 유행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속에 놓여 있으므로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경성에서 나타나는 유행을 그대로 이어받아 막연히 추종하는 존재, 제대로 된 소비욕구와 안목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로 규정되었으며 심한 경우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행은 일상의 폐해이자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행위양식이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집단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현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경성에서 나타나는 복식 유행과 그것을 추종하는 근대적 주체들이 다양한 시각을 통해 때로 옹호되고 혹은 비판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동시대에 공간을 달리 해 나타난, 같은 종류의 유행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과 비판,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드러나는 강제적이고 집단적인 개입의 면면은 이 시기에 지방이 유행 발현과 전파, 확산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생활 계몽의 공간으로 대상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⁶³⁾ 이러한 대상화는 지방과 지방 사람들을 근대적 유행과 완전히 별개의 공간, 동떨어진 존재로 분리하는 사회적 시선과 평가의 일면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근대 도시 경성 이외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유행은 한층 강력한 통제와 교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다름 아니었다. 서구-일본(동경)-경성(진고개-종로)-지방으로 이어지는 당대의 유행 전파 도식 속에서 각각의 공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주체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 우열 관계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논하는 방식 역시 다각적 면모를 검토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양상을 보이며 대비를 극대화할 뿐이었다.

4. 맺음말

이 글은 1920~30년대에 발행된 언론 매체의 유행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근대적 복식 유행과 그것이 발현 전파 확산되는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사회적 평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근대적 복식 유행에 관한 당대 사회의 평가에는 일련의 중층성이 존재하였다. 유행은 시대정신과 근대성 반영체로 간주되었으며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당대인들이 열망과 근대성 체현, 그리고 유행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동시에 지나치게 빠른 변화에 대한 경계의

63) 이러한 특성은 동시대에 이루어진 백의(白衣) 폐지와 색의(色衣) 착용 문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식민 권력이 주도한 의복 통제 정책의 하나였던 복색(服色) 교체 선전과 강제적 개입 경향은 당대의 언론 매체 기사를 통해 보았을 때, 도시보다는 지방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나타내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시에서 이러한 정책적 실천이 미비한 이유를 '유행'에 몰입한 여성이나 대중들의 호응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조희진, 2010 '조선의 색복화(色服化)를 위한 식민통치당국의 개입과 전략',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글문화연구원 월요모임(2010. 5. 3) 발표요지 참조).

시선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더불어 유행은 앞선 감각과 서구지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졌고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감각과 시대적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막연하게 서구의 유행을 지향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도 서구와 근대를 동일시하여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의 일면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때의 언론 매체와 기사를 쓴 개인이 취한 양면적 태도였다. 유행은 특히 개별 욕구 표현과 집합적 모방 대상으로 평가되었는데, 특정한 물건이나 행위에 대한 대중의 집합적 욕구를 유행의 중요한 속성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행의 두 가지 속성, 즉 집합성과 개별성에 관한 인식도 한층 구체화되었다. 복식 유행은 외형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때의 변화는 근대적 미의식을 형성하고 스타일을 갱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기도 했다. 서구에서 들어온 유행 상품과 근대적 외형의 구성을 근간으로 한 복식 유행의 존재는 전통적 옷차림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적 대상을 드러내는 계기를 제공했고 낡은 스타일을 갱신하여 변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근대적 복식 유행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유행 그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유행이 시작되는 공간과 유행을 추종하는 주체에 관한 인식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비록 기사를 작성한 필자의 시각에 따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유행이 발현·전파되는 공간에 관한 인식에는 일련의 공통점과 중첩이 존재했고 그것은 당대에 통용되었던 유행의 순차적 확산 경로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유행은 근대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발현하고 확산되는 경로를 인식하는 당대 시선의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의 종속적 상황과 제한된 근대적 발전의 현실 또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유행 공간과 주체에 관한 중층적 평가와 이분법적 인식은 언론 매체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서구 혹은 일본과 조선의 유행에 시간적·질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어떤 유행이든 그것이 서구에서 직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오며, 이미 일본에서 지나간 유행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언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 그리고 유행에 관한 시선을 조선 내부로 돌려 다시 그 안에서 근대 도시 경성과 지방, 경성 내에서 진고개와 종로를 구획하는 방식은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맞닥뜨린 근대적 유행에 관한 조선인들의 ‘정황적 인식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복식 유행의 전파와 그 위상, 공간적 적합성에 대한 당대의 인식은 매우 복잡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서구-일본(동경)-경성(진고개-종로)-지방이라는 단선적 도식으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대에 공존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의 존재와 확산, 발현과 전파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공간들은 결코 병렬적 관계에 놓일 수 없었다. 이렇듯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난 유행과 그것이 자리하는 공간에 관한 인식의 근저에는 상대

적이고 이분법적인 구획, 그리고 공간적 위상에 따라 주체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특성은 유행에 관한 당대의 시선 속에서 ‘우월’과 ‘열등’, ‘선행’과 ‘지체’, ‘적합’과 ‘비적합’이라는 논리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주제어 : 의복, 패션, 패션 공간, 근대 매체, 근대 패션

투고일(2010. 2. 11), 심사시작일(2010. 2. 12), 심사완료일(2010. 3. 5)

<Abstract>

The Social Evaluations of Modern Fashion for Clothing and the Perception of Fashion Areas

- Focusing on the Analyses of the Articles by the Media of the Press from the 1920s to 1930s -

Cho, Hee Jin *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the perception of those contemporaries and the social evaluations about the modern fashion for clothing and the areas in which modern fashion appeared, spread and prevailed by analyzing the articles about the clothing fashion published by the pres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The abolition of the inherited social status system, the finding of individual dignit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apitalistic production methods built up the environments for mass consumption, and also the appearance of various media made it possible to transmit and spread fashion. These conditions contributed to the advent and spreading of modern fash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bout the social evaluations of modern fashion for clothing and the perception of fashion areas are as follows. First, fashion was regarded as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of the age and modernity. Second, fashion was seen as the index of advanced sense and the Western world-oriented property. Third, fashion was evaluated as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desires and the object of collective imitation. Fourth, fashion was thought of as an opportunity to form beauty sense and to change styles. The social evaluation of modern fashion extended to the perception of the areas from which fashion started, and people who followed fashion. At that time, fashion was thought to be transmitted in the order of the Western world, Japan, Gyeongseong (now Seoul) of Joseon, and provincial areas. The place in Joseon)in which fashion took place and showed itself exclusively was Gyeongseong, within which Jingogae and Jongro made a distinct difference from other regions in fashion. It was found that

* HK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the provincial areas of those days were not equipped with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good enough to generate fashion, but maintained old-fashioned characteristics of space. Gyeongseong tended to be thought of differently from provincial areas in that it was the place where fashion was generated and formed.

Key Words : clothing, fashion, fashion areas, modern media, modern fashion